

▶ 관련학회 창립

관련 학회로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창립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1993년 4월 29일 대한감염학회의 정회원 중 소아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소아 감염병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염병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하여 창립대회를 갖고 대한감염학회의 하나의 새로운 관련학회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연구회 형식을 취하여 출발하였는데 명칭을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로 하였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로 하였다. 1993년 6월 17일에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순천향의대 소아과학교실 이상주 교수님이 추대되었다. 이후 연구회는 춘, 추계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4년 11월부터 [소아감염] 학회지를 발간하였고 현재까지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1996년 6월부터 대한의학회로부터 준학회로 인준되어 현재와 같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이 학회는 정회원 450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와 공동 주제를 갖고 비정기적인 공동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있어 본 학회와의 학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창립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KOSNIC)는 대한감염학회의 정회원과 감염관리전문가들 중 의료관련감염의 중요성을 인식한 분들이 뜻을 모아 1995년 11월 15일 창립대회를 갖고 대한감염학회의 하나의 새로운 관련학회로 출발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울산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배직현 교수님이 추대되었다. 1996년 4월부터 [병원감염관리]라는 학회지를 현재까지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KoreaMed에 등재되었다. 창립 이후 매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하였고, 2002년 11

월부터는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감염관리 학술대회(East Asian Conference on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EACIC)를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까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발전하였다. 2006년 7월부터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구축하여, 현재 82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145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감염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59개 병원에서 15종의 수술 후 수술부위감염을 감시하고 있다. 현재 이 학회는 정회원 1,000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와 공동 주제를 갖고 비정기적인 공동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있어 본 학회와의 학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로 대한에이즈학회 창립

국내 HIV 감염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HIV/AIDS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2004년 에이즈 연구회가 결성되어 국내 에이즈에 대한 연구, 진료 및 정책 수행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 15일 대한에이즈학회(The Korean Society for AIDS, KOSAids)가 창립되어 대한감염학회의 관련학회로 출발하였다. 2007년 12월 15일 대한에이즈학회 창립 총회와 함께 기념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으며, 2008년부터 매년 11월에 대한에이즈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일선에서 감염인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 의사와 에이즈에 대한 실험실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자연과학자들 사이의 지식 및 정보 교류는 물론, 공동 연구 진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최신의 HIV/AIDS 관련 임상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연수강좌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진단/치료 및 기회감염에 대한 에이즈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이 학회는 임상학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300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와 공동 주제를 갖고 비정기적인 공동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있어 본 학회와의 학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로 대한면역저하환자감염학회 창립

2005년 12월 9일 감염내과, 혈액내과, 이식외과, 소아감염, 소아혈액, 임상미생물, 미생물학 등을 전공하고 있는 30여 명이 모여 대한면역저하환자감염학회(The Korean Society for Immunocompromised Host Infections, KSIHI)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 취지문에서 최근 의학 기술과 연구가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면역저하로 인한 감염 합병증의 빈도와 다양성이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크게 팽창되어 관련학회 창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장기이식을 포함한 면역기능저하환자의 감염에 대해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료지침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관학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006년 4월 28일 제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준비위원장이던 가톨릭의대 감염내과 신완식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011년 현재 서울의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를 회장으로 매년 회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과 공동주제를 가지고 공동 학술대회 혹은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어 학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호중구감소성 발열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생제의 국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국내자료를 근거로 한 치료지침을 개발하였다.



학회 사무실 개소 및 이전

2000년 이후로도 학회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감염학 교과서를 비롯한 학회주도 편찬 사업, 감염종합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회 회원수가 증가하고 업무량이 늘면서 학회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성이 생겨, 2009년 8월 21일 현재의 대한감염학회 사무실(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0 마젤란 21 아스테리움 1203호)로 이전하게 되었다.